

ESG 진행 동향과 시사점

2021년 11월

법무법인(유) 율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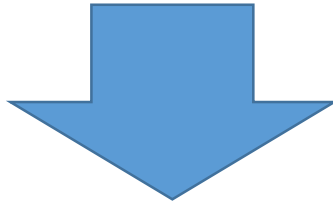
ESG연구소장 이민호

ESG란 무엇인가?

❖ 투자와 경영 의사결정시

- 전통적인 “재무적 수익성 위주” 고려

[Profitability]



- “비재무적 요소” 특히 ① 환경(Environmental), ② 사회적 책임(Social), ③ 지배구조(Governance)를 **추가적 핵심요소**로 포함

[Sustainability]

ESG는 투자분야에서 시발(始發)

UN, 투자·금융에 ESG 권고 (2005)



"분석, 자산 관리 및 증권 중개
분야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문제를 보다 잘 통합하기
위한 **금융** 업계의 권장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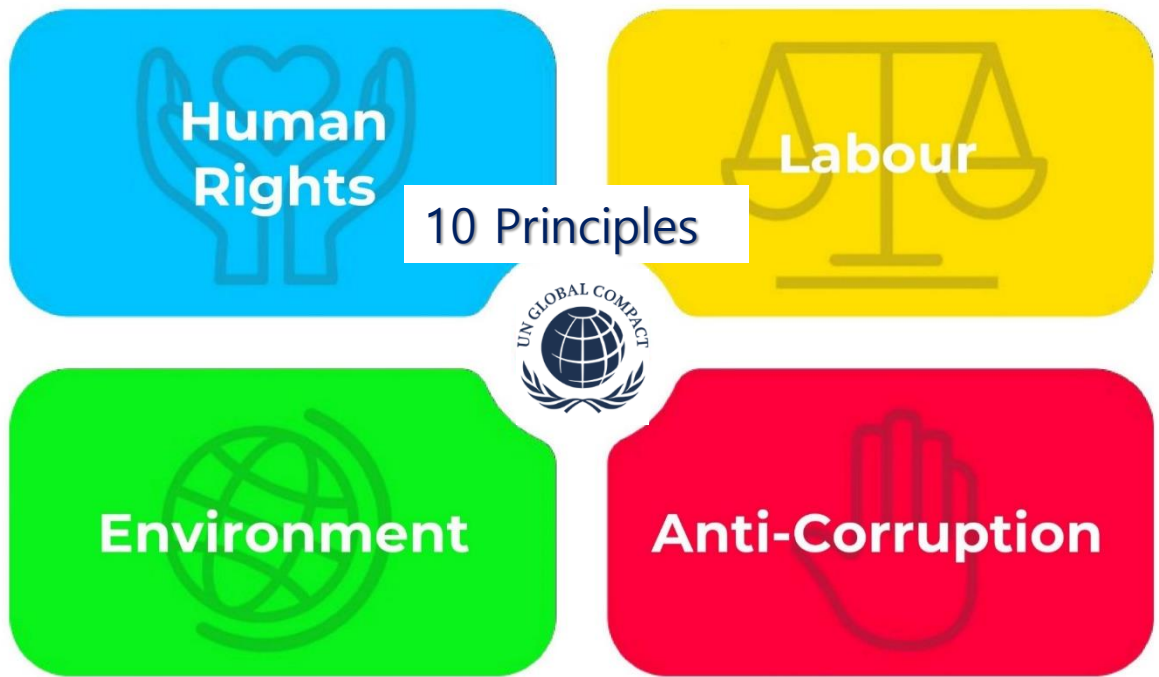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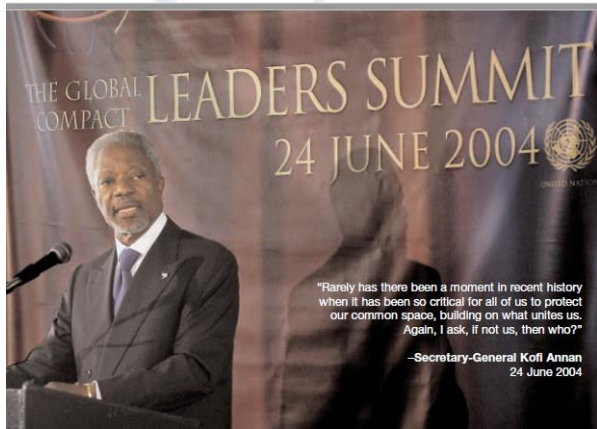
ESG 대두의 배경

① "Something New Under the Sun"



② "Capitalism with a Human Face"

UN Global Compact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자발적 국제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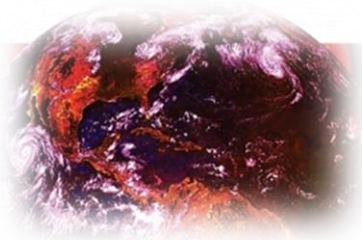


유엔 책임투자 (PRI) 6대 원칙 (2006)



- 1) 투자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적극 반영
- 2)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 역할
- 3)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 정보공개 요구
- 4) 금융산업의 책임투자원칙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
- 5) 책임투자원칙의 이행 효과를 증진시키도록 상호 협력
- 6) 책임투자원칙 이행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공개

위기의 심화와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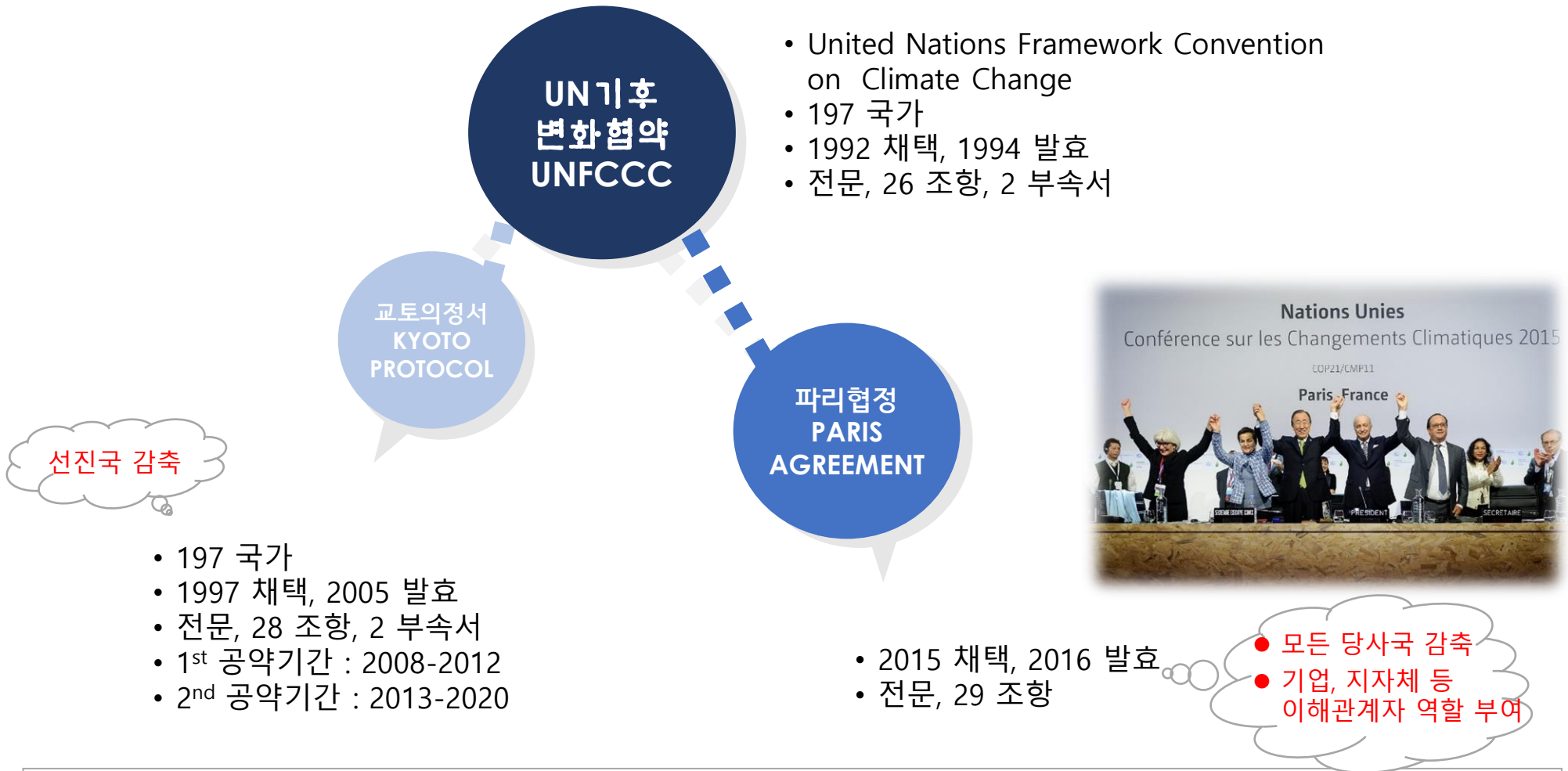
IPCC 6차 보고서 ('21.8, 제1실무그룹)

“IPCC, 1.5도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 10년여 앞당겨”

-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2018)보다 9~12년 빨라져



기후변화 국제적 Regime



2021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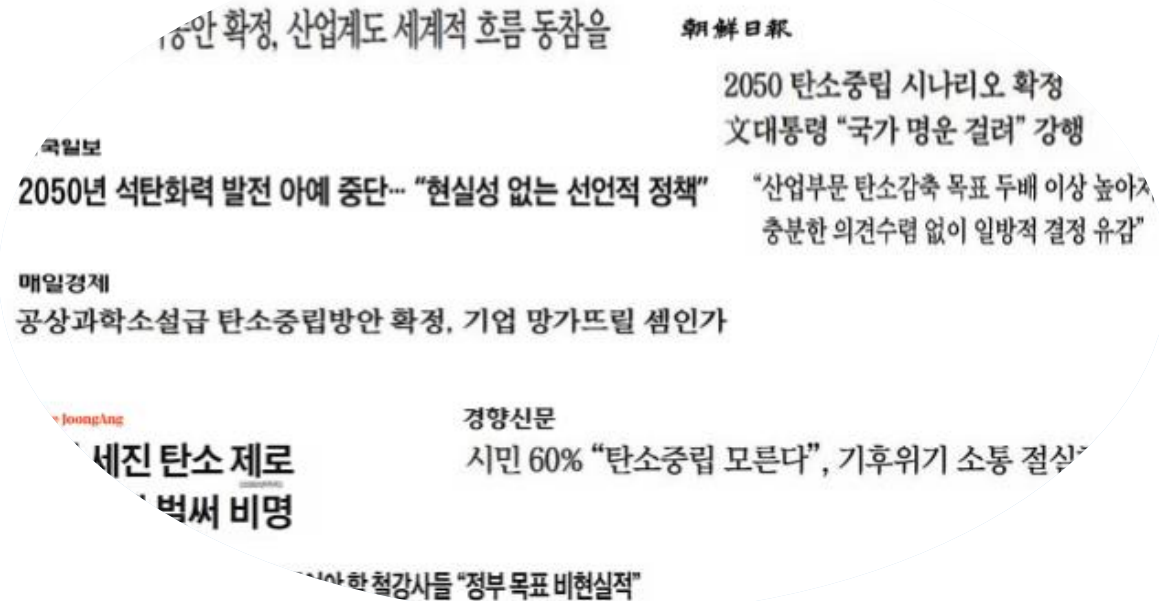
- 11.1~12, 영국 글래스고우
- 파리협정 출범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
- 각국 감축목표(NDC) 상향 발표

결과는?



탄소중립위원회 "2030년 40% 감축·2050년 순배출량 0"

- 2030 NDC 상향안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의결 (10.18)
- 2050년 석탄발전 중단... COP26에서 발표
- "목표 후퇴 금지 (No Back Sliding)" (파리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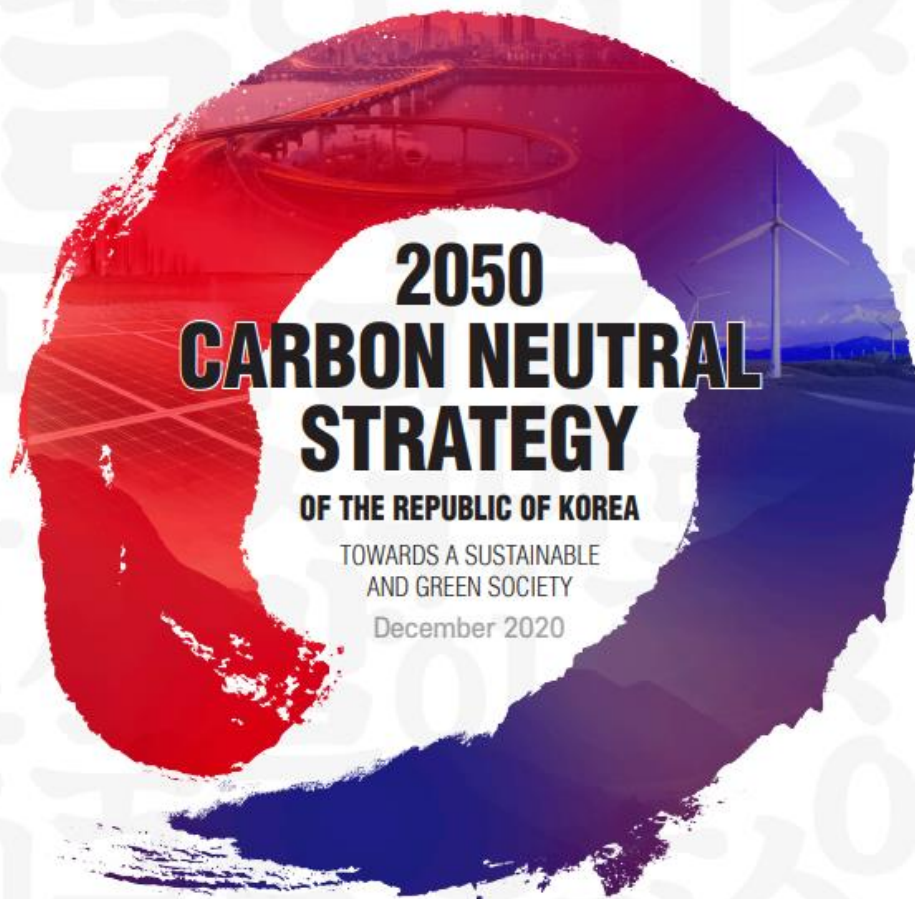


부문별 감축 목표

(단위: 백만톤CO₂eq)

구분	부문	기준연도('18)	現 NDC (‘18년 比 감축률)	NDC 상향안 (‘18년 比 감축률)
배출량*		727.6	536.1 (△191.5, △26.3%)	436.6 (△291.0, △40.0%)
배출	전환	269.6	192.7 (△28.5%)	149.9 (△44.4%)
	산업	260.5	243.8 (△6.4%)	222.6 (△14.5%)
	건물	52.1	41.9 (△19.5%)	35.0 (△32.8%)
	수송	98.1	70.6 (△28.1%)	61.0 (△37.8%)
	농축수산	24.7	19.4 (△21.6%)	18.0 (△27.1%)
	폐기물	17.1	11.0 (△35.6%)	9.1 (△46.8%)
	수소	-	-	7.6
	기타(탈루 등)	5.6	5.2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2.1	-26.7
	CCUS	-	-10.3	-10.3
	국외 감축**	-	-16.2	-33.5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



ESG 고려 압도적 (2020 머로우 소달리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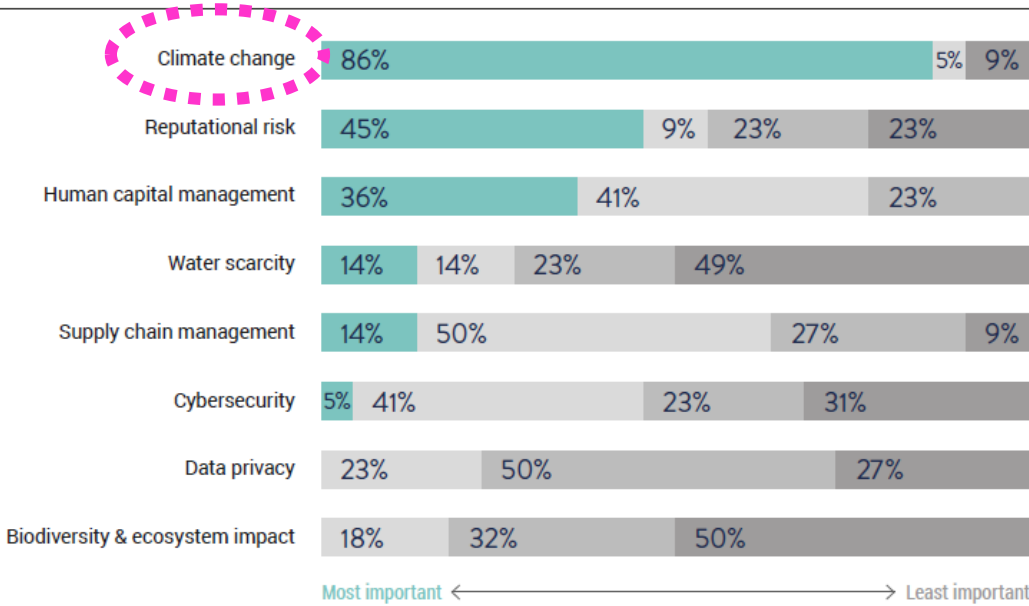
1 HAVE ESG RISKS AND OPPORTUNITIES PLAYED A GREATER ROLE IN YOUR INVESTMENT DECISIONS DURING THE LAST 12 MONTHS?



SETTING THE SCENE
This unequivocal response from investors of ESG in investment decisions...
The fact that ESG is now being used by investors to underpinably reinforces that ESG is now becoming an integral part of mainstream investment decision making

ESG 리스크와 기회가 지난 12개월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IF YES, WHICH TOPIC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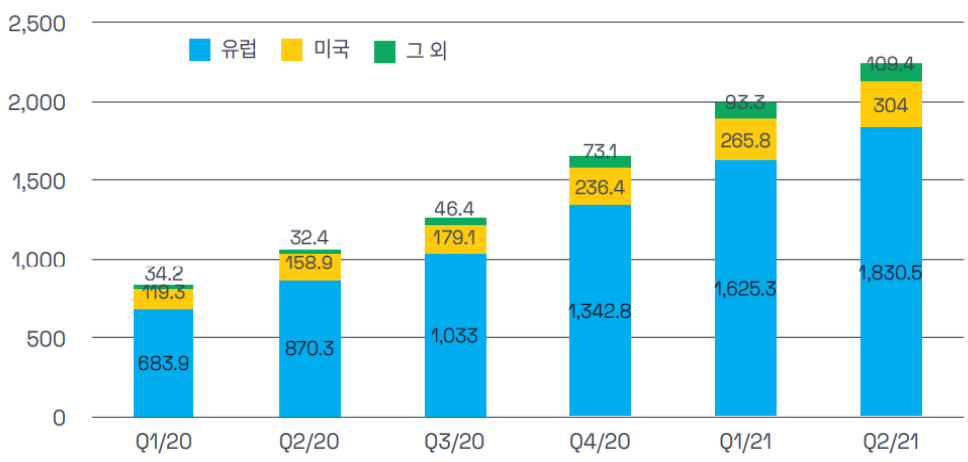


MORROW SODA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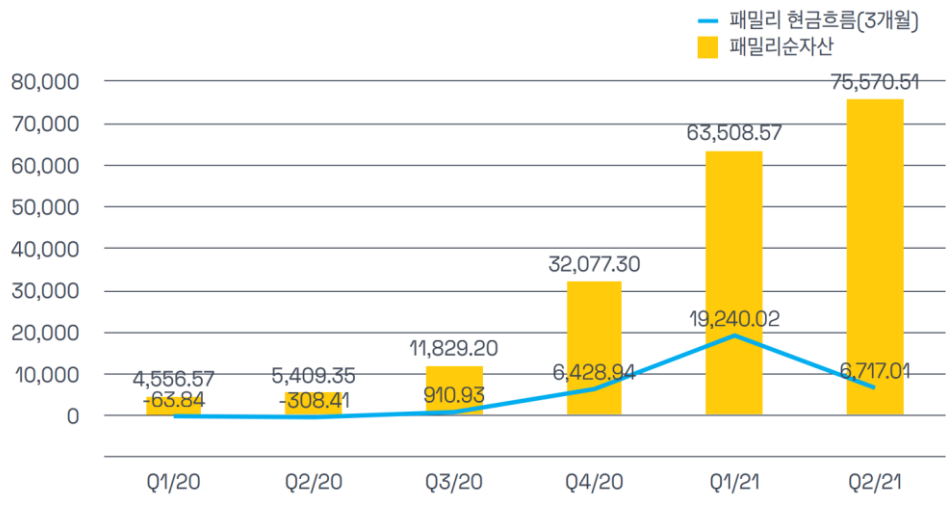
INSTITUTIONAL INVESTOR SURVEY 2020

ESG 투자시장 확대

해외 ESG펀드의 분기별 순자산 (단위: 억달러)



국내ESG펀드 (단위: 억원)



거세지는 ESG – EU



Taxonomy Regulation

Investments to be assessed according to strict criteria before being labele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Investment firms to undertake ESG risk analysis and publish product- and firm-level ESG disclosures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EU corporates to disclose ESG data relating to business operations; more detailed ESG disclosures being considered

- **EU Taxonomy(녹색활동 분류기준) '22. 1월 시행 예정**
 - 다만, EU이사회가 EU Taxonomy Climate Delegated Act 조사기간 2개월 연장을 요청하여 시행일 변경 가능성 잠재
- **EU 역내 금융기관에게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SFDR(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 시행 ('21.3)**
 - 2단계 조치인 RTS(규제기술표준) 적용은 '22.7월로 6개월 연기
- **기업의 NFRD(비재무적보고지침) 개정안으로서 CSRD(지속가능성보고지침)을 제안하고, '24.1월 발간보고서(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목표로 추진**
 - 지속가능성 보고를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요구
 - 비EU법인의 EU자회사 및 EU에 상장된 비EU법인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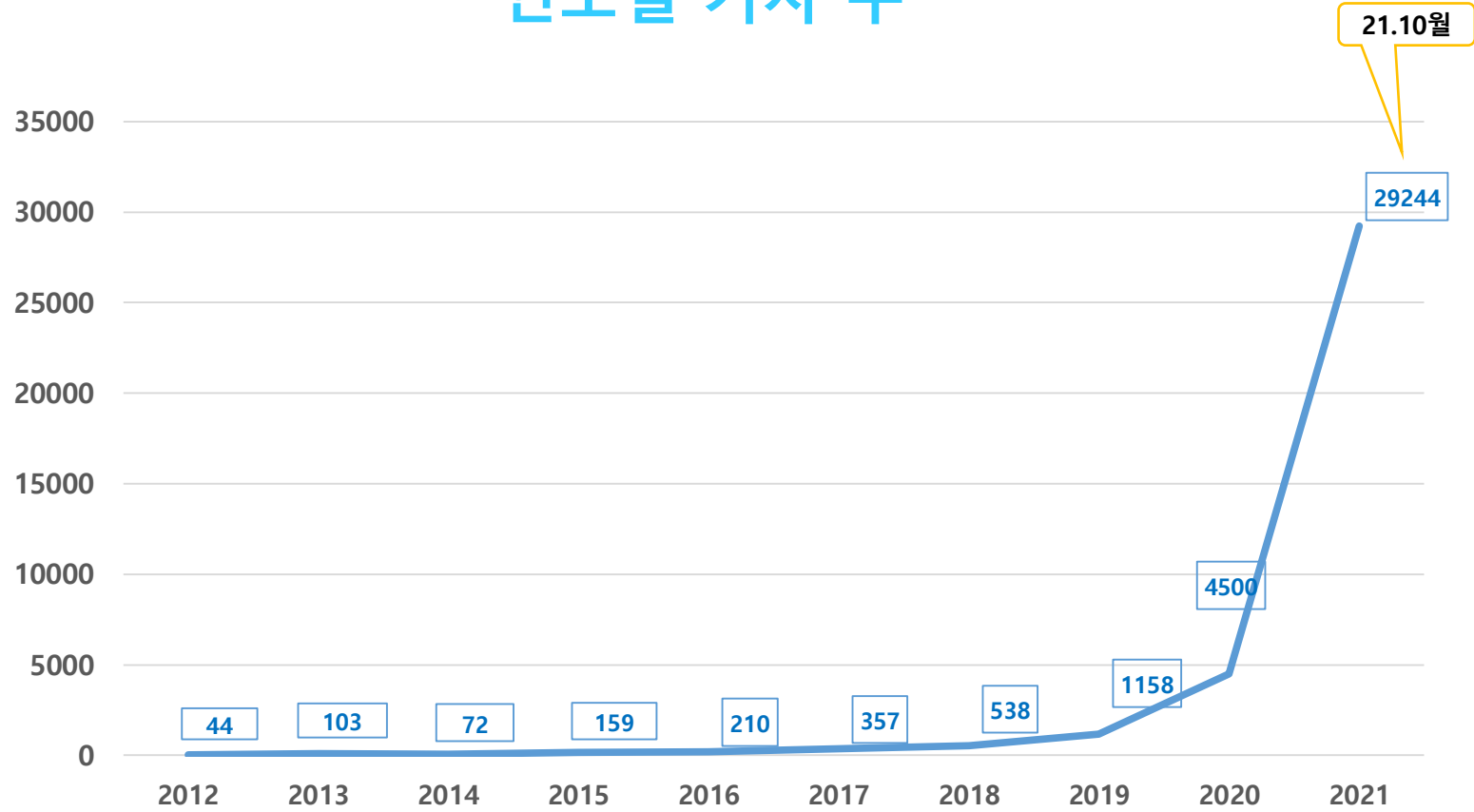
거세지는 ESG – 미국

- 모든 상장 기업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 추진 방안(안) 발표 (게리 겐슬러 SEC위원장, 7.28)
 - 의무적으로 SEC에 매년 보고하는 공시자료(10K)를 통해 공개
 - 해당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자료 요구
-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나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에게 공개 요구하는 서한을 주요 상장사에 발송 (9.22)
- 기후위기 등 ESG 리스크를 고려하여 안전 투자하고 관리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법(ERISA) 개정안 발표 (노동부, 10.13)



우리나라 언론의 ESG 관심 급증

연도별 기사 수



정부의 ESG 확산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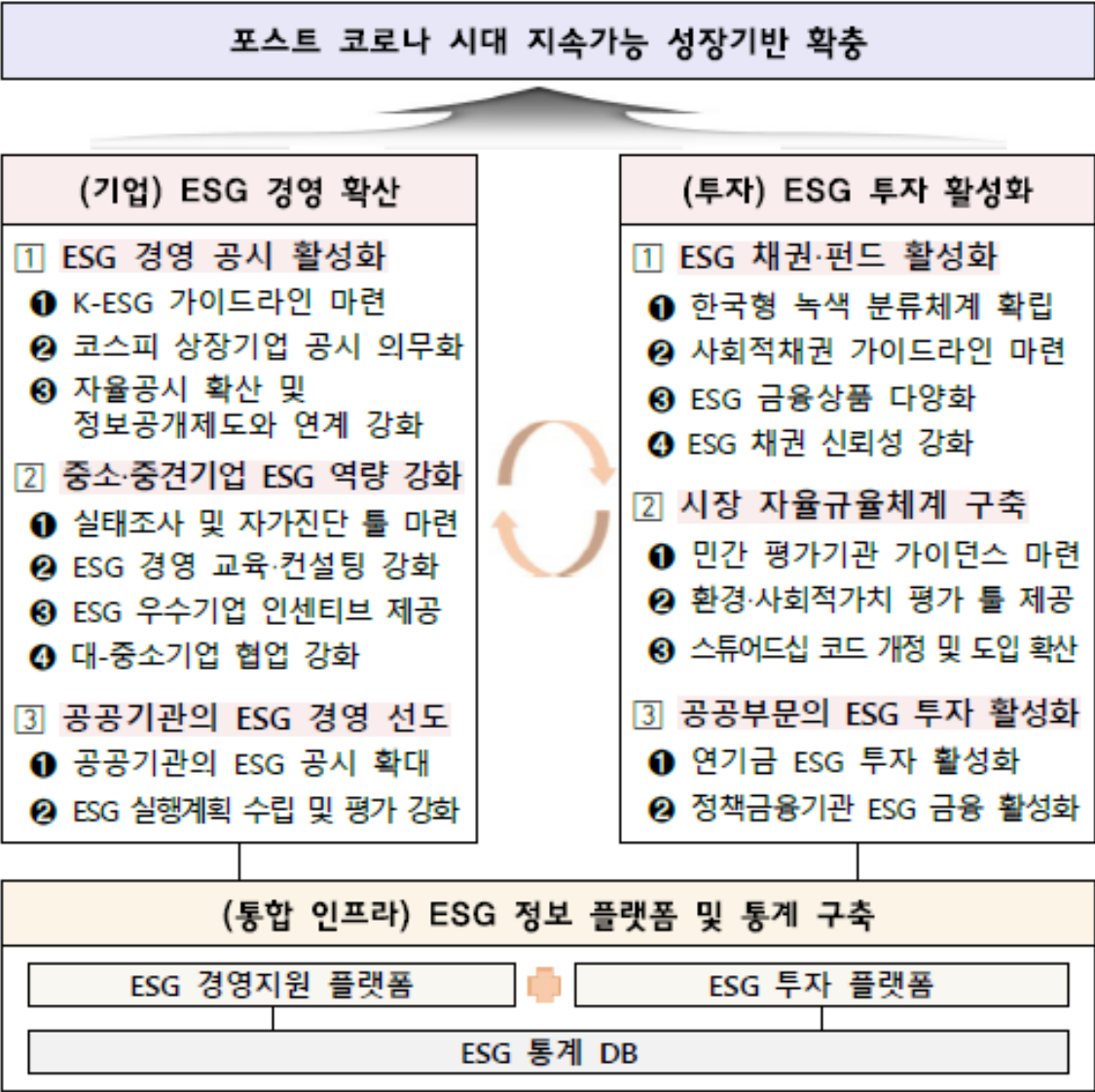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4

친환경 · 포용 · 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2021. 8. 26.

관계부처 합동



주요 진행 동향

- **환경책임투자 지원(환경기술산업법 10조의4)**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제정 ('21.12월)
 - 기업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표준 평가체계** 구축 추진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22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발표('20. 12.)**
 - 환경부/ 금융위/ 환경산업기술원/한국거래소
-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21. 1. 한국거래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금융위)**
 - ※ 지배구조보고서: '19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 **K-ESG 가이드라인 마련('21.12)**
- **중소기업 ESG 실태조사 ('21.하), 자가진단 툴 제공 ('22)**
- **공기업, '25년부터 단계적 공시 의무화 검토**

ESG Key players와 기업



ESG 경영 방향

I. RISK 관리	II. ESG 전략 수립	III. ESG 성과 관리
<div>❖ ESG 컴플라이언스</div> <div>1. 기존 규제(Regulation) 준수 + 모범기준 (Standard)* 준수 여부</div> <div></div> <div>❖ 전사적 리스크 관리</div> <div>경영진, 주주, 직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 지향할 수 있도록 내부 정책과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이를 경영에 내재화</div>	<div>❖ 강력한 ESG 전략 수립</div> <div>1. 자사만의 ESG 철학 및 스토리 구축</div> <div>2. '탄소중립 로드맵' 등 구체적인 전략과제 포트폴리오 구축</div> <div>3. ESG 실행 조직 설치</div> <div>4. 임직원 성과관리에 ESG 요소 반영</div> <div>❖ ESG 고려한 의사결정</div> <div>모든 경영활동에 ESG를 통합적으로 고려</div>	<div>❖ ESG 성과 평가</div> <div>성과 평가를 위한 적절한 측정 기준, 지표 등을 마련</div> <div>❖ ESG 성과 대외 공유</div> <div>정확하며 검증 가능하도록 ESG 정보 공시 강화</div>

기업 - ESG 위원회 도입

-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ESG위원회 도입 추세

(KOSPI 200 기업)

- 2021년 7월 기준 ESG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은 76개사(38%)
- 이 중 61개(79.2%) ESG위원회가 '21년에 신설 또는 확대·개편

- ESG위원회 안건 사례

주제	안건 사례
ESG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등급 현황 및 단계적 ESG 대응 전략• ESG 경영 추진 계획 보고
E(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현황• 탄소규제 현황 및 감축수단 보고
S(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공헌활동 2020년 실적 및 2021년 계획•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상생협력 기구 출연(안)
G(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주주권익 보호 담당위원 활동결과

건설산업의 ESG 세부 요소

건설산업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협력)
환경오염 (소음/먼지/오염물질)	안전관리 (사고예방, 교육강화)	기업윤리 (뇌물/반부패/담합)
친환경건축 (그린, 제로에너지)	지역사회 관계 (현장, 고객불만 최소화)	이해관계자 협력 (원하도급관계, 공급망)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인적자원관리 (고용, 능력개발)	지배구조 (기업승계, 내부거래)

출처 : 박선구, 건설정책저널 Vol.43 (2021.10)

ESG 워싱(Washing) 유의해야!

- **ESG 워싱**
 - 그린워싱에서 용어 파생
 - ESG 경영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매우 과장하여 포장하는 홍보나 마케팅
- **바람직한 ESG 경영의 확산을 위해서도 ESG 워싱은 규제 필요**
 - EU가 녹색산업 분류체계(EU Taxonomy)를 법제화 한 것은 ESG 워싱 방지의 일환
 - 우리나라는 K-Taxonomy를 2021년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시사점 및 제언

- 기후변화 대응의 메가트렌드
- 금융 환경 변화 유의
 - K-Taxonomy
- 리스크 and/or 기회
 - 중국 등 후발 경쟁국 대비 경쟁력
- 해외 ESG 대응 현황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보는 ESG의 미래

2021.11.09

C2S CONSULTING

목차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원인

ESG의 미래전망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원인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원인

"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

The New York Times

Late Edition

Tuesday, October 14, 1997
 \$5.00 (U.S. and possessions)
 \$6.00 (Canada and Mexico)
 \$7.00 (elsewhere)

U.S. UNEMPLOYMENT IS WORST SINCE DE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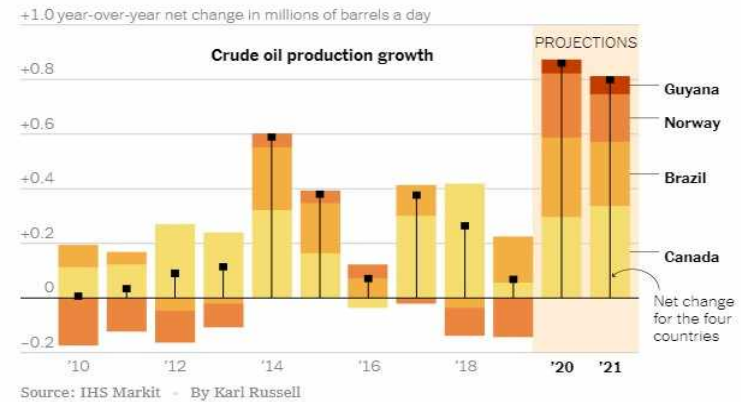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2075 2080 2085 2090 2095 2100 2105 2110 2115 2120 2125 2130 2135 2140 2145 2150 2155 2160 2165 2170 2175 2180 2185 2190 2195 2200 2205 2210 2215 2220 2225 2230 2235 2240 2245 2250 2255 2260 2265 2270 2275 2280 2285 2290 2295 2300 2305 2310 2315 2320 2325 2330 2335 2340 2345 2350 2355 2360 2365 2370 2375 2380 2385 2390 2395 2400 2405 2410 2415 2420 2425 2430 2435 2440 2445 2450 2455 2460 2465 2470 2475 2480 2485 2490 2495 2500 2505 2510 2515 2520 2525 2530 2535 2540 2545 2550 2555 2560 2565 2570 2575 2580 2585 2590 2595 2600 2605 2610 2615 2620 2625 2630 2635 2640 2645 2650 2655 2660 2665 2670 2675 2680 2685 2690 2695 2700 2705 2710 2715 2720 2725 2730 2735 2740 2745 2750 2755 2760 2765 2770 2775 2780 2785 2790 2795 2800 2805 2810 2815 2820 2825 2830 2835 2840 2845 2850 2855 2860 2865 2870 2875 2880 2885 2890 2895 2900 2905 2910 2915 2920 2925 2930 2935 2940 2945 2950 2955 2960 2965 2970 2975 2980 2985 2990 2995 3000 3005 3010 3015 3020 3025 3030 3035 3040 3045 3050 3055 3060 3065 3070 3075 3080 3085 3090 3095 3100 3105 3110 3115 3120 3125 3130 3135 3140 3145 3150 3155 3160 3165 3170 3175 3180 3185 3190 3195 3200 3205 3210 3215 3220 3225 3230 3235 3240 3245 3250 3255 3260 3265 3270 3275 3280 3285 3290 3295 3300 3305 3310 3315 3320 3325 3330 3335 3340 3345 3350 3355 3360 3365 3370 3375 3380 3385 3390 3395 3400 3405 3410 3415 3420 3425 3430 3435 3440 3445 3450 3455 3460 3465 3470 3475 3480 3485 3490 3495 3500 3505 3510 3515 3520 3525 3530 3535 3540 3545 3550 3555 3560 3565 3570 3575 3580 3585 3590 3595 3600 3605 3610 3615 3620 3625 3630 3635 3640 3645 3650 3655 3660 3665 3670 3675 3680 3685 3690 3695 3700 3705 3710 3715 3720 3725 3730 3735 3740 3745 3750 3755 3760 3765 3770 3775 3780 3785 3790 3795 3800 3805 3810 3815 3820 3825 3830 3835 3840 3845 3850 3855 3860 3865 3870 3875 3880 3885 3890 3895 3900 3905 3910 3915 3920 3925 3930 3935 3940 3945 3950 3955 3960 3965 3970 3975 3980 3985 3990 3995 4000 4005 4010 4015 4020 4025 4030 4035 4040 4045 4050 4055 4060 4065 4070 4075 4080 4085 4090 4095 4100 4105 4110 4115 4120 4125 4130 4135 4140 4145 4150 4155 4160 4165 4170 4175 4180 4185 4190 4195 4200 4205 4210 4215 4220 4225 4230 4235 4240 4245 4250 4255 4260 4265 4270 4275 4280 4285 4290 4295 4300 4305 4310 4315 4320 4325 4330 4335 4340 4345 4350 4355 4360 4365 4370 4375 4380 4385 4390 4395 4400 4405 4410 4415 4420 4425 4430 4435 4440 4445 4450 4455 4460 4465 4470 4475 4480 4485 4490 4495 4500 4505 4510 4515 4520 4525 4530 4535 4540 4545 4550 4555 4560 4565 4570 4575 4580 4585 4590 4595 4600 4605 4610 4615 4620 4625 4630 4635 4640 4645 4650 4655 4660 4665 4670 4675 4680 4685 4690 4695 4700 4705 4710 4715 4720 4725 4730 4735 4740 4745 4750 4755 4760 4765 4770 4775 4780 4785 4790 4795 4800 4805 4810 4815 4820 4825 4830 4835 4840 4845 4850 4855 4860 4865 4870 4875 4880 4885 4890 4895 4900 4905 4910 4915 4920 4925 4930 4935 4940 4945 4950 4955 4960 4965 4970 4975 4980 4985 4990 4995 5000 5005 5010 5015 5020 5025 5030 5035 5040 5045 5050 5055 5060 5065 5070 5075 5080 5085 5090 5095 5100 5105 5110 5115 5120 5125 5130 5135 5140 5145 5150 5155 5160 5165 5170 5175 5180 5185 5190 5195 5200 5205 5210 5215 5220 5225 5230 5235 5240 5245 5250 5255 5260 5265 5270 5275 5280 5285 5290 5295 5300 5305 5310 5315 5320 5325 5330 5335 5340 5345 5350 5355 5360 5365 5370 5375 5380 5385 5390 5395 5400 5405 5410 5415 5420 5425 5430 5435 5440 5445 5450 5455 5460 5465 5470 5475 5480 5485 5490 5495 5500 5505 5510 5515 5520 5525 5530 5535 5540 5545 5550 5555 5560 5565 5570 5575 5580 5585 5590 5595 5600 5605 5610 5615 5620 5625 5630 5635 5640 5645 5650 5655 5660 5665 5670 5675 5680 5685 5690 5695 5700 5705 5710 5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난을 표현한 NYT〉

공급과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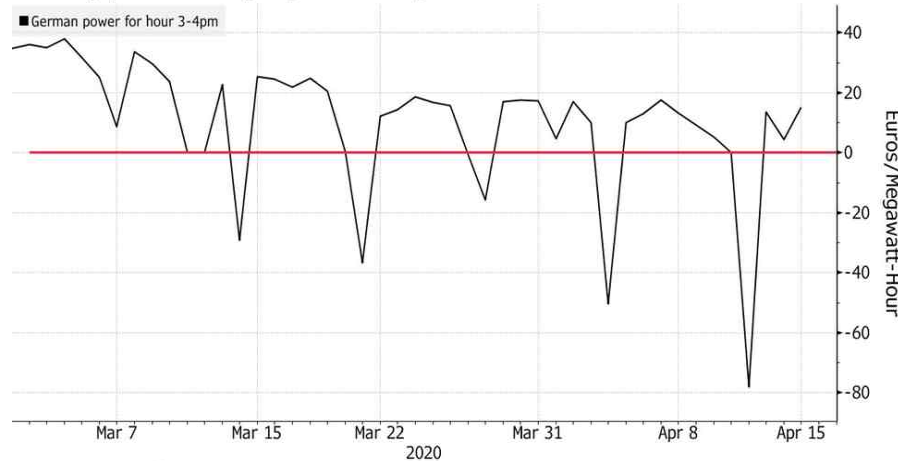


Driving New Production



Below Zero

Intraday power turning negative during some hours



AGRICULTURE | LNG | NATURAL GAS | OIL | METALS — 06 Feb 2020 | 10:56 UTC — Singapore

China's CNOOC declares force majeure on LNG contracts amid coronavirus outbreak

백신 경제회복으로 에너지수요 급증



〈코로나19이후 경제금융여건 - 한국금융연구원〉

백신 접종으로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행

2021년 세계 상품교역 8% 급증

코로나 이후 소비도 빠르게 회복

경제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

■ 그린버블과 그린 보틀넥



전기차와 전력망에 사용되는 5개의 광물 바스켓 가격 최근 1년간 139 % 상승
그린에너지 시스템 전환 초기 핵심광물과 토지제약은 그린 보틀넥 야기
대량의 자금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유입되며 밸류에이션 버블 영역 확대

How green bottlenecks threaten the clean energy business
(2021.06.22_Economist)

탄소 중립을 향해 전 세계가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관련 원자재·설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가격이 급등하는
‘그린 보틀넥’이 발생

[탄소 제로 30년 전쟁] [7] 전세계가 경쟁, 시간이 없다
(2021.07.07_조선일보)



■ 화석연료 투자축소로 인한 공급여력 감소



자료 : IEA(2020.5월), *World Energy Investment 2020*

2020년 석유 가스부문 투자는 30% 축소

2013년 8000억 달러 투자는 2021년 3500억 달러로 축소

미국과 글로벌 원유 시추공(Oil Rig) 수는 50% 축소

영국 가스저장의 70% 차지하는 대형 가스저장소 폐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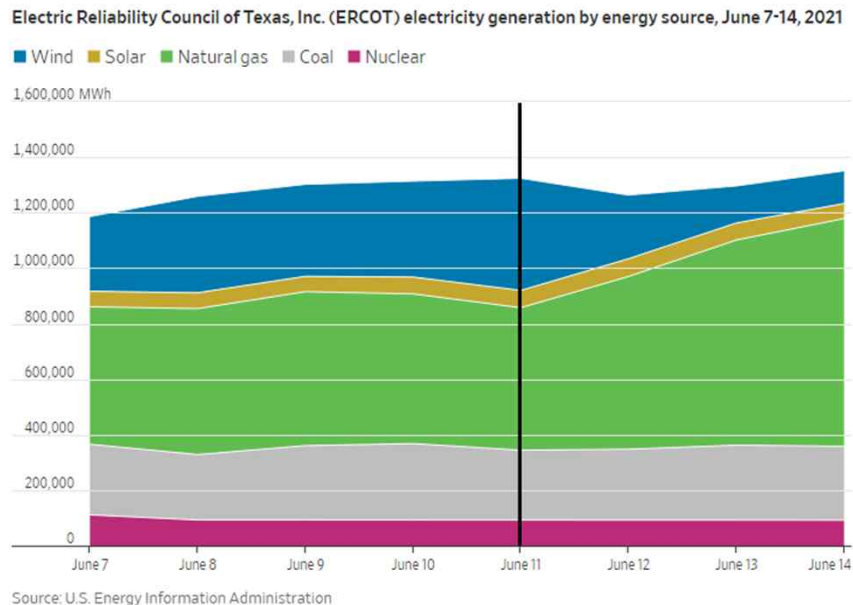
반복되는 세계 각국 정전의 원인



반복되는 세계 각국 정전의 원인

The California and Texas Greenouts

Renewables show again that they aren't reliable to power the grid.



〈The California and Texas Greenouts_WSJ〉

캘리포니아 폭염으로 전력수요 급증
해가 진 이후 태양광 전력공급 부족

텍사스 폭염에 풍력발전 생산량 급감
가스발전 급증했으나 순환정전

가뭄으로 수력발전 제한 (노르웨이, 브라질)

스웨덴 한파로 정전 (얼어붙은 풍력터빈)
전력사용량 많은 진공청소기 등 사용자제

영국발 풍력발전 전력생산 급감이 전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확대
6~8배 (피크수요 20배) 이상 전기요금 상승

■ 반복되는 세계 각국 정전의 원인

스웨덴 정전으로 인한 주민센터 공지사항

집에는 통조림과 같은 상하지 않는 음식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난방난로가 있다면 보온용으로 쓰세요.

촛불과 tea-light도 따뜻함을 제공하지만 화재의 위험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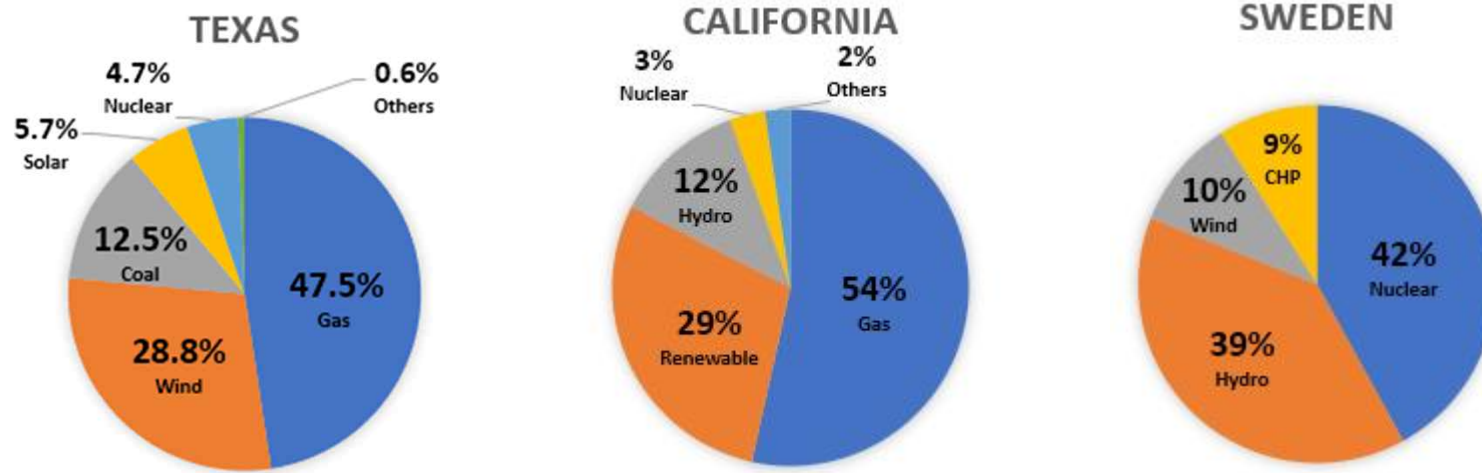
정전이 장기화될 경우 정전으로 인해 단수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이나 다른 용기에 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전이 되면 집이 금세 추워질 수 있습니다.

단칸방에 머물면서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추위의 경우, 자치단체는 warming centres를 열 것입니다.

반복되는 세계 각국 정전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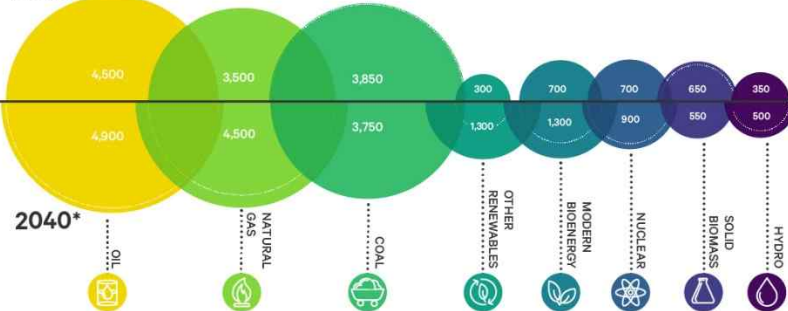


기후 영향을 받는 경직성 전원 비중 텍사스 (34.5%) / 캘리포니아 (41%) / 스웨덴 (49%)
 비상시 전력수급 고려 없이 원전과 화석연료 비중 줄이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폭염과 한파에 재생에너지 전력수급 문제가 천연가스 수요 급증으로 전이 / 전기요금 폭등
 천연가스 가격폭등이 석탄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확산

2019 IEA VS 2020 I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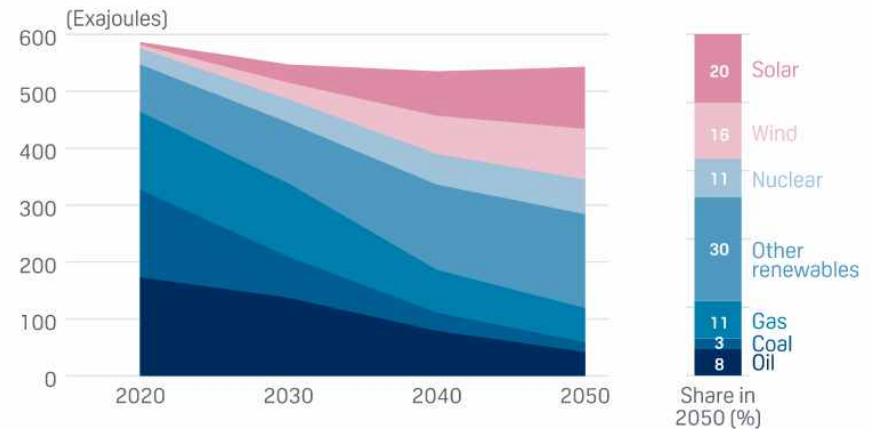
Changes in the Global Energy Mix

2018



*Based on Stated Policies Scenario

GLOBAL ENERGY MIX UNDER 'NET-ZERO' SUPPLY SCENARIO



Source: IEA's Net Zero by 2050 report

"Saudi Arabia is no longer an oil country, it's an energy-producing country,"

"Not only we are an energy country, we are a very competitive energy country,

and we are low-cost in producing oil, low cost in producing gas

and low-cost in producing renewables and will definitely be the least-cost producer of hydrogen.

I urge the world to accept this as a reality. We are going to be winners of all these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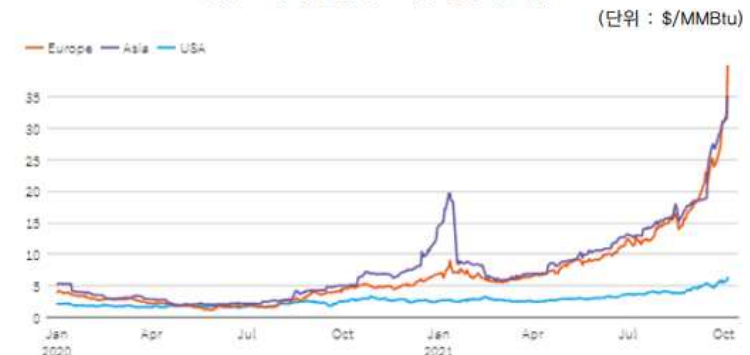
화석연료와 전기요금 폭등

〈 국제유가 변화 추이(2020.9월~2021.10월) 〉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https://www.petronet.co.kr/> (검색일 : 2021.10.13.)

〈 주요 지역 천연가스 가격 변동 추이 〉



자료 : Reuters(2021.10.7.), "Record gas prices slow LNG investment in Asia; N.America scrambles on exports"

Coal (USD/T) 232.00 +2.1 (+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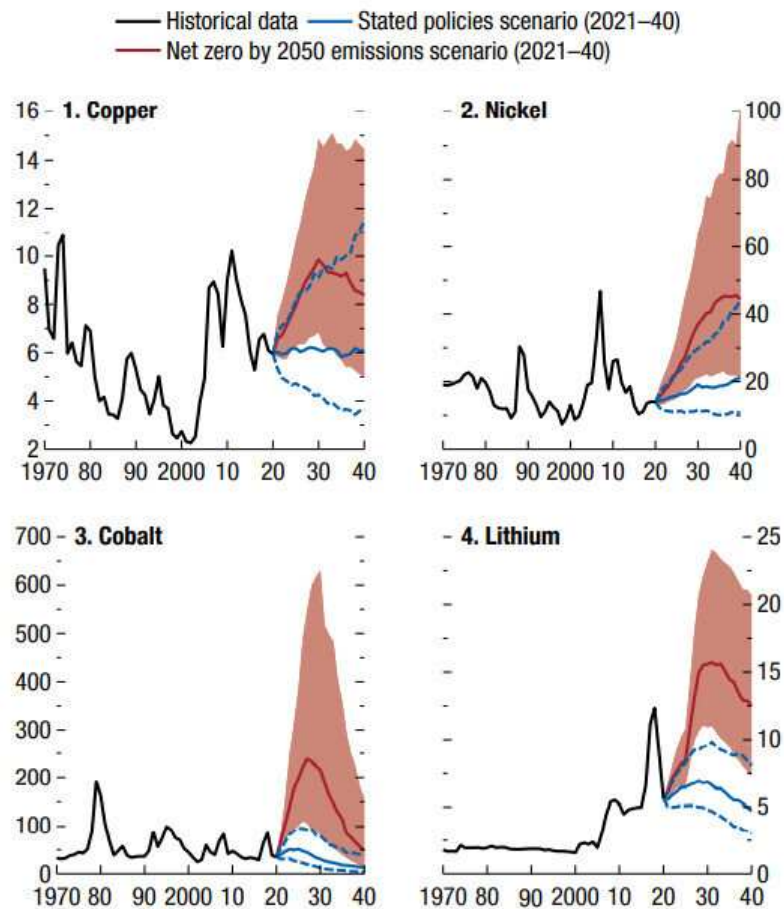


Power Rally



비철금속 가격 폭등

Figure 1.SF.8. Price Scenarios for the IEA's Stated Policies Scenario and the Net Zero by 2050 Emissions Scenario
(Thousands of 2020 US dollars a metric 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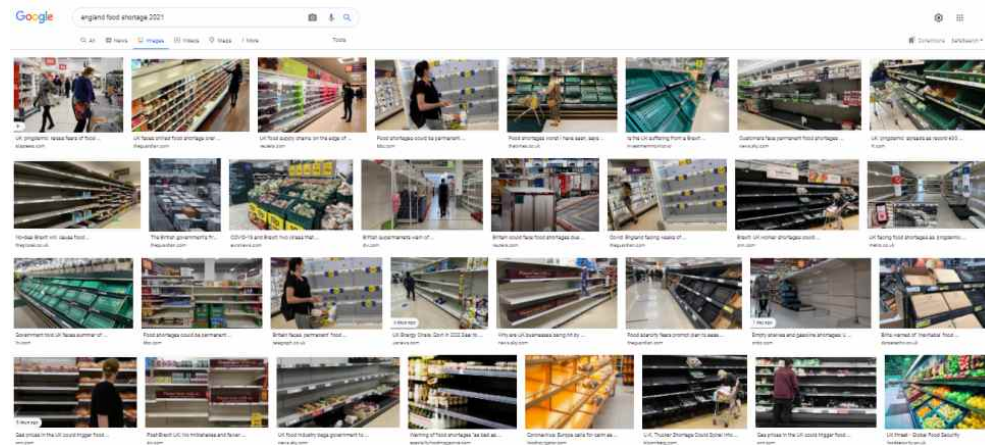
화석연료를 이용해 만들어야 하는 비철금속 가격 폭등
 그린 버블과 공급제한이 추가 가격 상승 기폭제 역할
 향후 에너지 전환 비중이 늘어날수록 가격 더욱 폭등

코발트, 리튬 및 니켈 가격은 2020년 수준에서 수백 퍼
 센트 상승할 것이며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10)

화석연료 관련산업 공급망 제한



Why does a carbon dioxide shortage matter so much to the UK economy?



화석연료를 이용해 만드는 비료가격이 석탄, 천연가스 비용상승으로 생산차질 빚거나 공장 가동 중단
가축 도축, 탄산음료, 냉각시스템, 식수정화, 농산물과 신선고기 포장 등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부족
이산화탄소는 암모니아, 비료, 석유화학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에 직격탄
홍작과 운임상승의 영향까지 더해져 영국 식품가격지수 급등, CO2가격 5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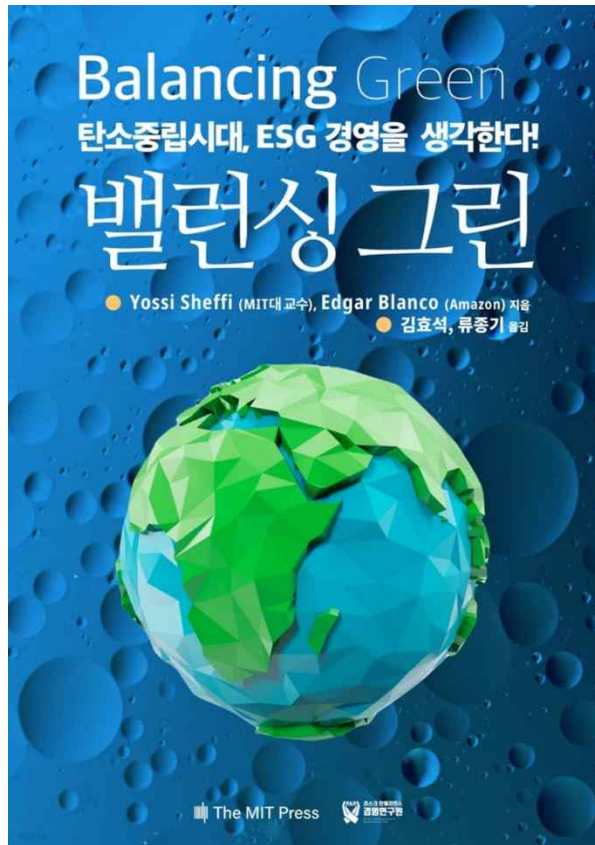
■ 화석연료 기반 산업생산 감소로 인한 공급망 붕괴

전기기관차 포기	전기요금 급등으로 영국 화물 운송업체 Freightliner는 물품 운송 위해 디젤 열차로 다시 전환 산업계가 비용 절감을 위해 어떤 연료로 전환하는지 보여주는 최신 사례 중 하나
제지공장 감산	영국 최대 신문용지 제조사 Palm Paper는 가스비용 급증으로 울거울 감산 고려 스웨덴 제지 공장 Klippans Bruk AB도 작업 줄이고 직원의 3분의 1 해고
식량 위기	값비싼 가스로 인한 장기간 비료 공장 폐쇄로 향후 곡물 공급 우려 급증 높은 난방 비용으로 네덜란드 온실의 토마토, 오이, 꽃 공급 중단 위기
부식방지 금속	아연 대기업 Nyrstar와 Glencore Plc는 비용 상승으로 유럽 제련소 최대 50% 감산발표 유럽 최고 철강생산기업 ArcelorMittal 가동 중단
주택개조비용상승	프랑스 건축 자재 제조업체 Saint-Gobain은 석고, 지붕, 단열재 제품가격 올려 기록적 에너지 비용을 상 쇄할 것이라 경고. 6000개 일자리 중 4분의 1이 위협받고 있다고 발표.
실리콘 부족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중국 실리콘 감산 노르웨이 Elkem ASA를 포함한 제조업체들이 실리콘 기반 제품 판매 중단
화학제품 딜레마	유럽 최대 규모 BASF SE를 비롯한 화학기업들 암모니아 감산 CRU는 유럽 암모니아 용량의 약 절반이 생산 중단(축소)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미 폐쇄되었다고 발표

〈Dirtier Trains and Less Newsprint: the Energy Crisis Fallout (2021.10.17_Bloomberg)〉

ESG의 미래전망

탄소중립의 걸림돌 - 규모의 고통



심층적 환경기업은 꽤 성공적이었지만,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스토니 필드의 유기농 우유 생산 - 수요증가에 비해
공급전환에 비용과 시간 소요 - 수입 유기농 우유 전환
- 탄소발자국 증가

델컴퓨터의 대나무 소재 포장 사용 - 세계적 수요 증가
- 가격 폭등

ESG를 위한 친환경 제품 생산의 가장 큰 장벽은 공급제한
천연자원 제약, 규제정책으로 글로벌 생산용량 제한

■ 탄소중립의 걸림돌 – 소비자 선택

친환경을 외치지만 사실 지속가능성을 명분으로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생활 수준을 낮추려는 소비자는 사실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에 투자할 수 없고 정부는 의미있는 변화를 강요할 수 없다.

유니레버의 탄소발자국 중 62%는 소비자의 제품사용에서 발생한다. 유니레버가 자신과 공급망을 완전히 탄소중립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환경적 발자국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회사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여전히 실패할 것이다.

ESG 사명과 수익률

공익·환경만 강조하다 경영 망가진 ‘다논’... ESG,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다논은 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친환경 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익 추구 강조 등 'ESG 경영의 교본'으로 불리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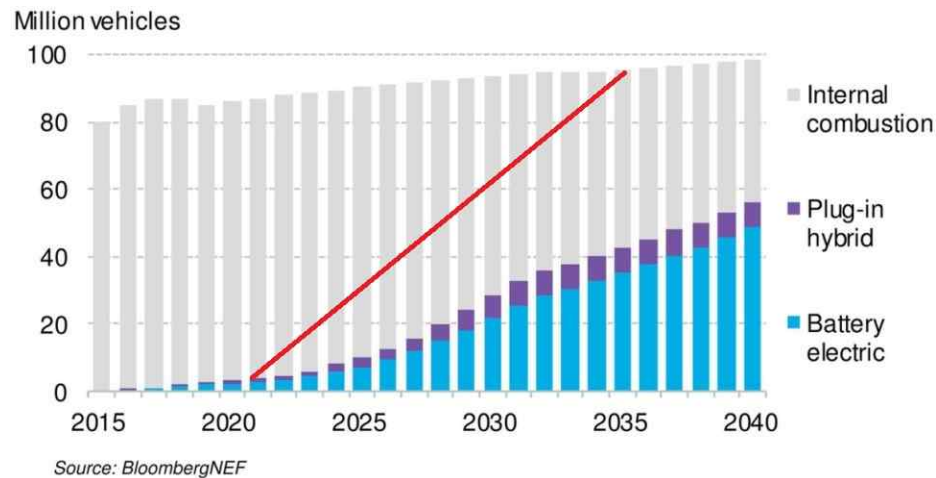
지난 1년 반 사이 주가가 20% 넘게 하락하고, 지난해 매출이 7%가량 줄어드는 등 실적 부진

"CEO가 '사명' 강조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 소비 '사업' 활력을 불어넣는 데 소홀" (FT)

■ 시나리오 1 – 더 많은 재생에너지와 강력한 ESG 드라이브

All Britain's electricity to be green by 2035

PM will pledge huge investment in clean energy



〈유럽 전기차 비중 전망_BloombergQuint〉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와 탄소감축 정책 확대

EU는 GDP의 15%인 330조원을 투입 그린뉴딜을 추진 중

친환경에너지와 탄소감축시장 주도권 확보와 미래산업 선점 의도

올해 겨울 한파여부가 관건

■ 시나리오 2 – 에너지 전환 반발과 화석연료 에너지 복귀

러시아	아시아 석탄 수출 확대 위해 철도 건설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대 석유생산국이며 화석연료 수익에 의존 / 태양광 풍력 자원 풍부하나 활용 더딤
브라질	소고기와 콩 생산 위해 아마존 밀림 개방 / 선진국 지원 없다면 탄소 감축 노력 거부
호주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 / 탄소 배출 저감계획 제출하지 않음
인도	탄소 배출 저감계획 제출 거부 / 기후변화 문제는 수십억 톤 배출한 미국 등 선진국 책임 주장
이란	파리협정도 서명하지 않음 / 핵무기와 경제제재 해제 시 탄소 배출문제 검토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침체와 부채누적으로 곤경 / 선진국들이 부채 문제 돕는다면 기후변화 대응 고려
멕시코	전력산업 국유화로 인한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와 석유생산량 증대 우려
터키	탄소 감축 목표 제출하지 않음 / 천연가스 의존도 줄이기 위한 석탄생산 증대
미국	트럼프 정부보다 더 많은 유정 허용 / 에너지 위기 이후 석탄 발전 22% 증가
중국	이중 통제 이후 에너지 위기 현실화 / 에너지 수급 위한 머니 게임 선언 및 석탄생산량 증대

〈Bloomberg / The Times / 한국일보 등 인용해 정리〉

■ 시나리오 3 – 에너지전환 속도조절과 다양한 탄소감축 방안 모색

영국 "탄소중립 정책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비용증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여론 압박에 따라 '오는 2035년 이후 신규 가정용 가스보일러 판매 금지 조치 철회 히트펌프(수소보일러)교체시 평균 1만파운드 (한화 1603만6000원)이상 비용 예상

스위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마련한 탄소세법 개정안 부결

스위스 정부는 당초 제시 법안이 지나친 수준이라 간주한 뒤 새로운 초안 마련

재생에너지 비중확대와 화석연료 복귀가 충돌하면서도 합의점 찾아나갈 가능성

특정에너지원만이 아닌 모든 에너지원의 탄소감축 노력 다양화 모색

이번 겨울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열쇠

■ 에너지 위기가 ESG에 미칠 영향

ESG 버블 ESG 보틀넥

‘모두가’ 에너지 전환 시도 – 그린 버블과 그린 보틀넥 (유한한 자원)
글로벌 국가들이 에너지전환에 충분한 자원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매우 중요
충분하지 않다면 공급제한으로 비용상승, 수익하락, 전환속도 지체
ESG의 이행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

전환갈등

부국(서유럽)의 에너지 전환 방식에 빈국(중·동부유럽) 반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던 재생에너지 주춤, 대안(원전)부상 및 화석연료 회귀
한국 탄소노미 경우 LNG도 추가하자는 요구 부상
서유럽 에너지 위기 극복과정에 따라 이 같은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ESG지형 영향

■ 에너지 위기가 ESG에 미칠 영향

B2C

정책당국과 기업은 반드시 최종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 구매의지를 물어보아야
최종 선택은 소비자의 몫 (더 비싼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 사용할 수 있나)
최종소비자 선택과 관련한 유럽의 에너지전환 정책 상당부분 후퇴

시장기회

유가 상승 지속은 과거 한국 주무대였던 중동시장 새로운 기회
탈석유 위한 프로젝트 관심도 높아 (팀 코리아 형태의 종합 장기프로젝트)
그들의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젝트 기획능력 필요

ESG 컨설팅

산수의 시대에서 수학의 시대로 진입
ESG 기준 강화로 요건에 맞는 기업 수 감소 – ESG 수익성에도 영향
ESG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에너지 시장변화를 고려한 컨설팅 해야
최소 비용으로 효과 볼 수 있는 대안 제시 필요 (ESG 진입 타이밍)

End of Document

해외건설기업의 ESG 트렌드에 맞는 대응전략

2021. 11. 15.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 강화



Executive Director of UNODC

“기업도 인류, 윤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영을 중시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

글로벌 · 정부의 ESG 규제 강화



“EU 그린딜(EU탄소중립정책)”



‘2050 탄소 중립선언, 한국형 그린뉴딜’
‘2026 코스피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

ESG

투자자들의 ESG 요구, 투자 확대

S&P Global

“ESG 투자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은
기업을 고르는 수단으로 자리 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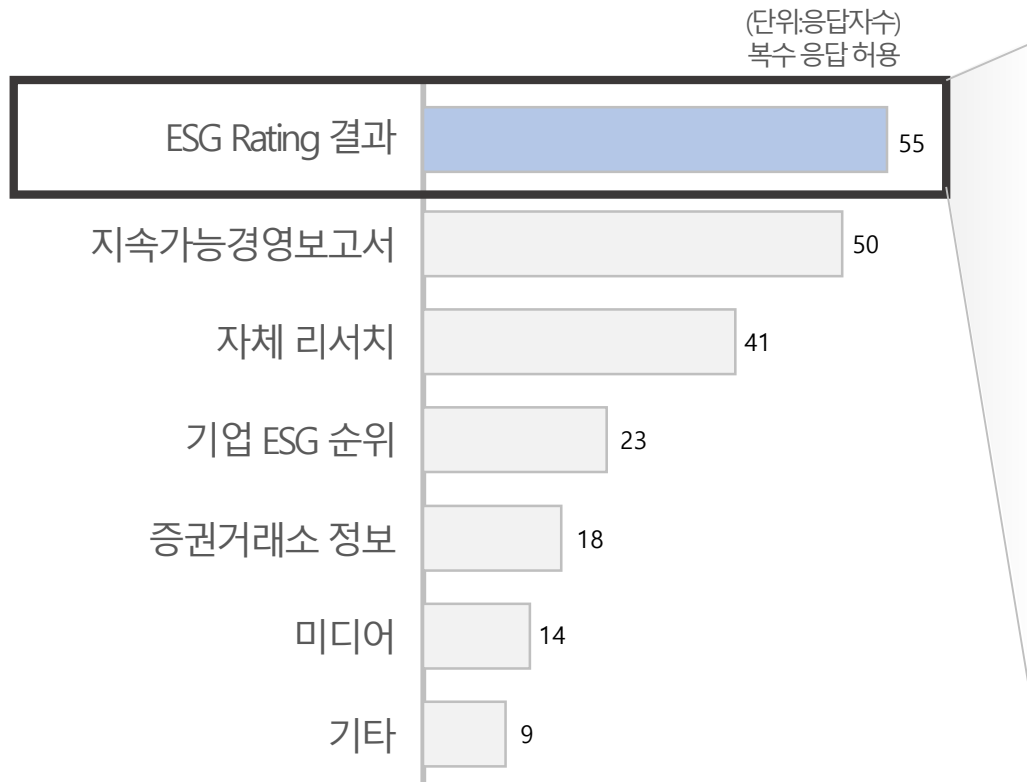
BLACKROCK

“20년 1월 CEO 서한을 통해 TCFD, SASB 요구
2030 ESG ETF는 ‘18년 대비 약 26배 증가할 것”

건설업에 요구되는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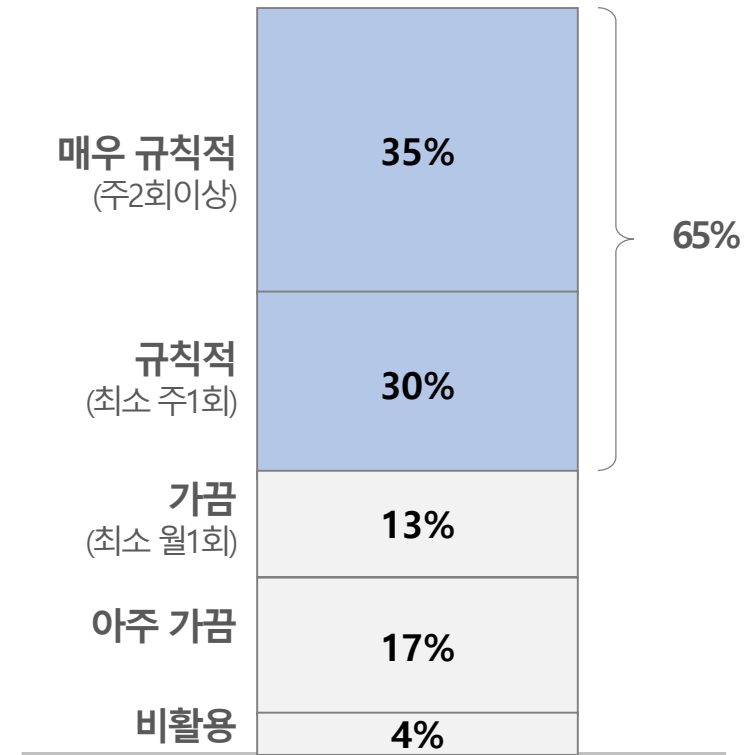
안전,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폐기물, 에너지 효율 규제
‘탈원전, 탈석탄’ 등 시장의 변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가치
노동자 인권, 지역사회 기여

[투자자 의사결정시 가장 유용한 정보 출처]



투자자 설문결과, ESG 투자에 가장 유용성이 높은
기업 ESG 정보 출처는 ESG Rating 결과임

[ESG Rating 결과 활용 빈도]



투자자의 65%가 최소 주 1회
기업 ESG Rating 결과를 활용

[Global/국내 건설사 ESG Rating]

MSC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ferrovial

A

DJSI Industry Leader

SKANSKA

AA

-

VINCI 

A

-

ACS
 ACTIVIDADES DE CONSTRUCCIÓN Y SERVICIOS

A

DJSI World

BOUYGUES
 CONSTRUCTION

AA

-

A건설

BB

DJSI World
 (11년 연속)

B 엔지니어링

BBB

DJSI Asia-Pacific
 (8년 연속)

C건설

BBB

DJSI Asia-Pacific
 (11년 연속)

국내 건설사에 대한
`투자자 관점의 ESG평가'는
Global Top tier 대비 낮은 수준임

* 국내 건설사가 DJSI ESG Rating에서는
상위의 등급을 받고 있지만, 투자자 관점의
ESG Rating에서는 높지 않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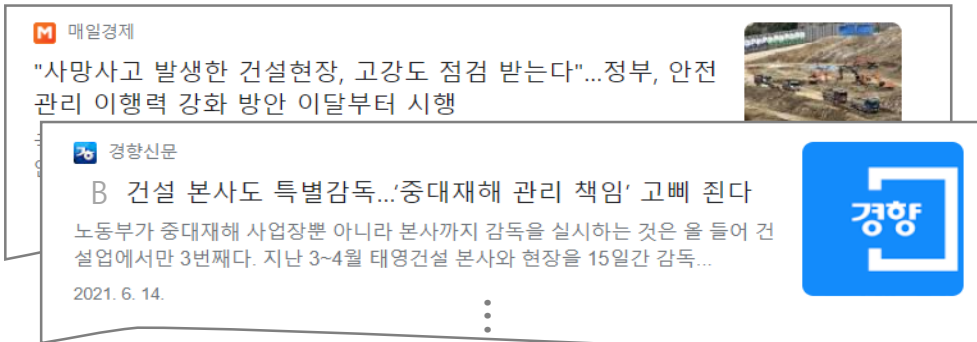
ESG 추진방향 ① ESG 추진에서도 '안전'은 가장 최우선 과제임

안전사고 지속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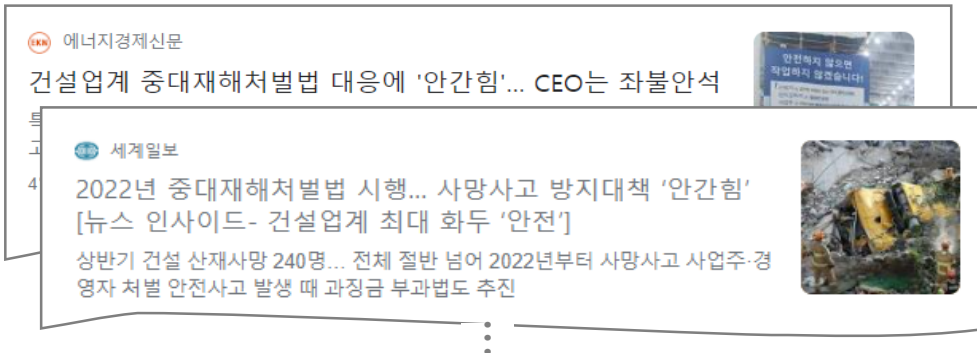
*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자체 외에도
감성적 내용도 기사화

정부의 안전사고 근절 기조 심화



* 하청업체의 사고시
원청업체에 고강도 감독, 점검
→ 일벌백계 분위기

안전관련 처벌 법규 강화



*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수위 및
처벌 대상의 강화
- 안전관리자 > PM > CEO

ESG 추진방향 ① ESG 추진에서도 '안전'은 가장 최우선 과제임

ESG 평가시에도 '안전'은 Critical Risk 임



E/S/G 항목별 Ra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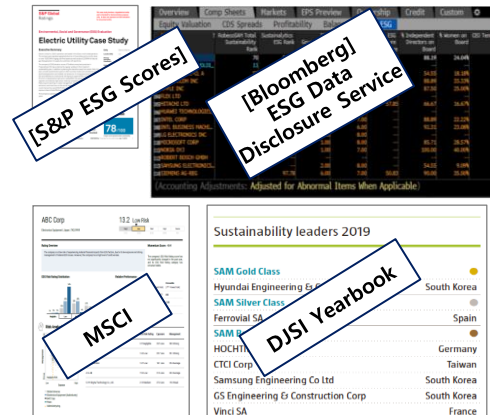
산업별 ESG Rating 기준적용
(항목차등, 비중부여 등)

수시 Monitoring

각종 미디어로 부터 Controversy
issue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Report 발행

Controversy 발현시 **subtraction**

기업별 업종별 Report



ESG 추진방향 ② 우선적으로 기업경영 전반에서 ESG 수준을 제고해야 함



※ 모든 ESG 영역의 수준이 제고되어야 지속가능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MSCI 평가항목 : Construction & Engineering 산업]

건설산업 평가지표

Pillar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Themes
(영역)

기후변화

천연자원

오염/
폐기물

친환경기술

인적자본

제품/책임

이해관계
상출

기회균등

지배구조

기업활동

탄소배출

물 스트레스

유해물질
배출/폐기

청정기술
(17%)

노동관행

제품안전 및
품질

분쟁광물

통신 접근성

소유/지배

기업윤리

제품
탄소발자국

원자재 조달

포장재 및
폐기물

그린빌딩

인적자본개
발

화학물질
안전성

지역사회 관
계

금융 접근성

이사회

조세투명성

기후변화
취약성

생물다양성
및 토지 이
용

전자 폐기물

재생에너지

보건/안전
(25%)

소비자
금융보호

의료 접근성

보상

자금조달의
환경영향

공급망
노동기준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보건및영양
관련 기회

회계

책임투자

보건 및 인
구
통계 리스크

全 산업
공통평가항목

영역별 가중치

17%

25%

58%

[건설산업 특성]

타 산업 대비 적은 영역 (The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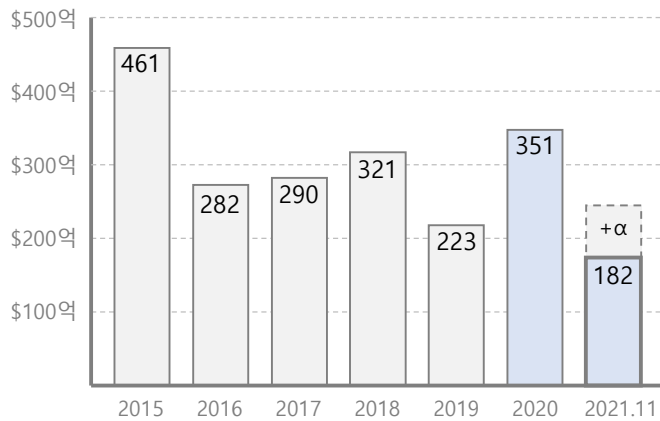
- 타 산업 : 평균 6~7개
- 건설업 : 4개

Governance 영역의
높은 가중치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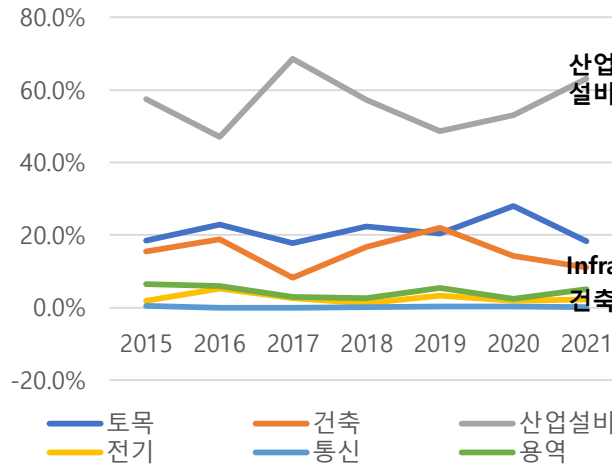
ESG 추진방향 ③ 해외 사업의 경우 그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ESG Risk를 관리해야 한다

[참고]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 수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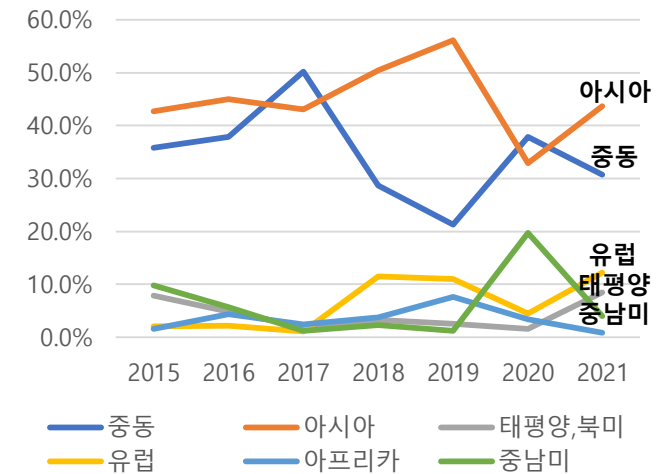
'2015~'2021 해외수주



'2015~'2021 공종별 해외수주



'2015~'2021 지역별 해외수주



2010년대 중반 대비 전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해외 건설수주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Product의 Project를 수행중임

- 중동과 아시아 시장 중심에서 유럽, 태평양, 중남미 등의 다양한 지역의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음

ESG 추진방향 ③ 해외 사업의 경우 그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ESG Risk를 관리해야 한다



기후변화 와 미래성장 전략 연계

- EU 그린딜 (EU탄소중립정책)
: 경제, 운송, 에너지, 농업, 철강, 시멘트, ICT, 섬유, 화학 등 대부분 산업 포괄

온실가스 관련 규제/법제화

- EU기후법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탄소국경세)
: '23년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분야 탄소국경세 적용
: '35년부터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 금지
: 교통, 제조, 난방관련 탄소 배출 비용 상향
: 항공·선박 연료에 세금 부과



국가 경제 수준에 따른 집중영역 차이

- 중진국 이상 (싱가폴, 대만) : 환경, 지배구조
- 개도국 ~ 중진국 (중국, 인니) : 반부패, 환경
- 개도국 (베트남) : 사회, 반부패

반부패/사업투명성

- 중국 : '12년 이후 반부패 척결정책 본격화
- 베트남 : '19년 반부패법 시행
(베트남판 김영란법)

자국 건설업 경쟁력 확보

- 자국 건설업과의 협업 및 자국 근로자 채용 요건 강조



ESG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이

아직 없지만, 금융권 중심 ESG 확산 중

- 카타르 : 증권거래소ESG 전략보고서 발행 권장
- UAE : 상장공기업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의무
- 이집트 : '22년부터 ESG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 사우디아라비아 : 유엔(UN) 지속가능성 개발 목표에 서명

ESG 영역 중 환경,에너지 중심 진행 중

- 카타르 석유공사(QA) : CSR을 통해 기후변화 및 사회적 경제발전 의지 표명, 전담조직 추진
- UAE 에너지전략 2050
 - ① 청정에너지 기여도 2050년까지 50%
 - ② 전력생산 탄소배출량 70%감축
- 사우디 정부 및 준정부 기관에서는 ESG 전략 채택을 가속화 중

Washing vs **진정성**

S **단기** vs **중장기**

리더십 & 경영철학 **G** **구성원 동참**

국내와 **Global** 내부추진 + 대외 **Comm.**